삼광사 어린이 문화 캠프

7월 29~30일 250명 참가

부산 삼광사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29~30일 어린이 문화캠프를 경내에서 진행했다.〈사진〉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삼광사에서 주관한 이번 문화캠프에는 부산경남어린이 및 인솔자 250명이 참가했다.

문화캠프는 연꽃 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발우공양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 및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며 "캠프 기간 동안 영어, 수학, 국어 등 공부는 모두 잊고 부처님 품 안에서 잘 쉬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며 힘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삼광사 템플스테이사업단에서는 상시로 휴식형, 체험형, 일반형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코레일과 업무협약으로 '내일로(열차프리티켓 상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익형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因果法, 한 치의 벗어남 없어"

천불사,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 봉행

대중에게 법공양으로 회향하고 불사의 참된 의미와 공덕을 알리는 시간이 열렸다. 이번 법석은 천불사 회주 무애 스님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아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법석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태고종 김해 천불사(회주 무애)는 7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가사불사 점안법회와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무애 스님은 "올해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된 공양을 올릴 방법을 모색하다 혜초 종정 스님을 모시게 됐다"며 "내 인생 마지막 가사불사라 생각하며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방법으로 의미 있게 회향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가사 점안식에 이어 대중들은 대웅전을 돌며 가사 이운식을 진행했다. 종정 혜초 스님이 법석에 올라 공덕 및 인과에 대한 법문을 전했다.

혜초 스님은 꽃을 부처님께 올리고 황제가 된 양무제와 신라 시대 재상 김대성의 전생담을 들려주며 "부처님의 인과는 정확하며 틀림이 없다. 공덕은 지은 대로 갚아지고 인과의 법칙에서 한 치 벗어남이 없다"고 설법했다. 이어 "'콩 심은데 콩이 나며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속담은 불교의 인과에 정확히 맞는 말이며 불사 공덕에 동참할 때는 인과에 대해 강조하며 봉사를 당부하셨는데 오늘 법석에서 무료급식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기회를 주신 스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7월 30일 태고종 김해 천불사에서 열린 가사불사 점안법회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에서 혜초 스님은 "부처님은 정직하시며 인과는 정확하다"고 설법했다.

무애 스님, 80세 맞아 법석 열어
"인생 마지막 가사불사라 생각"
가사불사 점안법회도 함께 봉행
불사 공덕 인과법 가르침 전해

한편 무애 스님은 김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및 김해불교합창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포교 1세대로 활동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1981~1990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운영위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을 6년 동안 지냈다. 현재 한국불교태고종 서부경남종무원 종회의장으로 신생 종무원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천불사는 포교 뿐 아니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명절 백미를 전달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관내 노인들을 천불사로 초청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일심사 개원 "반야참회 지혜 가르칠 것"

8월 19일 오전 11시 개원법회 봉행

영천 은해사 부산 포교당 센텀 일심사(주지 혜룡)가 8월 19일 오전 11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개원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찾아 법문할 예정이다.

일심사는 부산에서는 생소한 '반야참회'를 수행 지도하는 도량이다.

반야참회는 108예참과 자비도량 참법 등 기본적인 참회법을 발전시켜 참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나누고 명시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참회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유해 기복신앙을 넘어서도록 돕고, 염불 수행과 함께 반야참회 목표인 해오(解悟)에 이르도록 한다. 해오는 수행으로 체험한 초발심시변정각의 낮은 단계로 생사해탈을 확인하는 단계다.

혜룡 스님은 "참회 없이 해오는 가능하나, 해오 이후 내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자만심이 부작용으로 수행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며 "바른 참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평정심을 얻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혜룡 스님은 반야참회를 △구체적인 참회법 △체계적인 수행법 △수행과 현실 갈등 해소로 특징지어 설명했다. 특히 반야참회의 장점으로 '불수자신 참회'를 강조했다. 불수자신 참회는 자신을 지키지 못함을 참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악업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참회 하는 것이다.

혜룡 스님은 "불수자신 참회는 다른 사람의 악업에 대응하고 잘 싸워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현실 속 불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한편으론 어리석음에 속한다"고 말했다.

혜룡 스님은 서울 구로동 반야참회 교육관에서 반야법회 지도법사로 10년 동안 활동했다. 서울 반야법회에서 지도를 받은 재가자들은 반야참회가 수행의 나침판이 되었다고 한다.

장옥(60) 씨는 "참회를 통한 현실적 효과는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힘"이라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희(57) 씨는 "혜룡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회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3000배 혹은 108배를 하는데 왜 하는지, 내려 놓으라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했다.

혜룡 스님은 현재 화엄사서 안거 중이며 화엄사 학감이다.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 지족암에서 출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 석사를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에서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도 역임했다. (051)781-0643

하성미 기자

법륜비구니장학금 수여 "한국불교 밝히길"

청도 운문사, 7월 27일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7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산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외 20여 이사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일본 동경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과정 종본 스님과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자혜 스님, 성균관대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지인 스님,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동우 스님,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김익환 불자 등이 각각 500만원씩 수여받았다.



청도 운문사는 7월 27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수여자들은 한국불교발전의 초석과 빛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수여자 지인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 모교인으로서 회주 어른스님의 정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훗날 불교아동복지를 위해 회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수입금 5억 원을 기부한 것이 초석이 됐고, 현재 9억 원 상당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누적 수여자 38명에게 총1억9,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운문사는 7월 28~30일 제38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路!(팔정도) Follow Me!'를 실시했다.

초등학생 17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은 운문사 학인스님의 법고 시연 후 육법공양, 장경욱 어린이의 대표 선서, 장윤경 어린이의 대표 발원문 낭독, 학인스님들의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광 스님은 "아름다운 운문사를 찾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8路(팔정도)의 밝은 길을 알려줄 것이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반을 나누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공이랍니다'라는 주제에 따라 학인스님들이 구성한 독창적인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연, 템플스테이와 함께면 어렵지 않다!

범어사, 9월 2~3일 금연 템플스테이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부산대병원 부산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정규)와 함께 금연 의지를 다지는 '템플스테이 금연캠프'를 9월 2~3일 범어사에서 실시한다.

금연 캠프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계화함으로써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자리다. 발우공양, 예불, 금연을 위한 참선시간과 108배, 포행 등이 진행된다.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금연을 방해하는 일상에서 벗어난 '숙박형 금연 프로그램'이 결합돼 흡연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평소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고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템플스테이 후 참가자 금연 실천을 위해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참가비용은 전액 무료다.



사진은 지난해 겨울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실시된 금연 템플스테이 모습.

부산금연지원센터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금연캠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산사체험을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일상에 찌든 삶을 밝히며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051)242-9030

하성미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스님! 누가 더 손해일까요?!
▣ 본사의 염불시설비가 비록 200만원대지만 명산대찰 수억대의 소리와 비교시 그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이가 비교가 안된다고 수차 말씀드렸지요! .... 자아! 스님! .. 그러면 .. 염불인생 몇십년의 소리분별 박사님들과 법당에서 귀 법당의 소리와 본사의 간단한 샘플과 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염불을 해볼때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가 망신이고 누구의 경비가 손해일까요?! ...
▣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분만 빼고 소리구경 비교 신청을 하세요! 신청해도 안온다구요! ..... 경비 관계로 먼 곳은 여럿이 모여야만 갈 수 있기에 못갈 수도 있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 일반업체와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원이 전혀 다른 이유 : 음성학 전공자가 오랜 염불 오랜 소리연구 결과를 직접시공
각종 방생용 동시 구경
헤드셋 무선마이크 2개, 핀마이크 2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CD, USB겸용 1개, 스피커 2개, 완벽시설 후 200만원대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 추가, 스피커 16개까지 연결 가능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음성학 전공, 음향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염불소리 대표 궁희